

26~27일 영암 달빛축제 뮤직 페스티벌

문라이트 콘서트·달빛 디제잉 파티·수제맥주 시음회 등 다채

전국 192팀 예선 거쳐 달빛가요제...거미·김경호 등 축하무대

영암군이 월출산 달빛 아래에서 영암의 낭만·정춘·열정을 만끽할 '2023 영암 달빛축제 & 뮤직 페스티벌'을 오는 26~27일 이틀간 영암읍에서 개최한다.

축제 첫날인 26일에는 영암읍 오거리 파크랜드~새마을금고 구간에 월출라운지를 조성해 '달빛축제'가 개최된다. 달빛축제에서는 문라이트 콘서트, 달빛 디제잉 파티, 영암 수제맥주 시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달빛축제로 26일 오후 2시~11시 행사구간은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될 예정이다.

영암군은 이번 축제를 위해 공식 SNS에 사전 홍보이벤트로 초성퀴즈 이벤트, 럭키박스 이벤트를 진행한다.

축제 이틀날인 27일에는 영암종합운동장 일대에서 '달빛가요제', '초대가수 축하콘서트' 등으로 꾸며진 '달빛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영암군은 달빛가요제 사전 참가자 모집으로 영암군민 31팀을 포함한 전국에서 192팀의 지원을 받았다.

달빛가요제에서는 뜨거운 예선 경쟁을 뚫은 본선 진출자 10팀이 1등 상금 1000만원 등 총상금

2160만 원을 두고 각축을 벌인다.

축하콘서트는 세대를 아우르는 뮤지션 거미, 경서예지, 김경호, 류지광이 초청돼 추석을 앞둔 관광객과 영암군민, 귀성객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영암읍 도심 중심에 불을 환하게 밝혀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암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의 달빛을 주제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이틀간 행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가족들과 함께 낭만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냉방기가 설치된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탁구장에서 시민들이 경기를 즐기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냉·난방기 설치 마무리

영광군은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에 냉·난방기 설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탁구장에는 천장형 냉·난방기 6대를, 배드민턴장에는 독립형 냉·난방기 7대를 설치했다.

영광군은 이번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며 오래된 샤워장과 화장실도 개·보수했다.

생활체육공원은 지난 2010년 조성된 이후 오래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토로해왔다.

영광군은 도비 5억원과 군비 1억원 등 사업비 6

억원을 이번 개선사업에 투입했다.

영광군은 영광게이트볼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게이트볼장에도 냉·난방기 1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시설 개선공사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군민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공원이 군민들의 건강과 즐거운 여가활동을 위한 중심지로서 체육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w@kwangju.co.kr

'10년 허송세월' 목포 임성지구 개발사업 첫 삽 뜨나

LH와 신속 추진 협력 전략회의

옥암·석현동 199만㎡ 택지 개발

10년째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목포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2027년 말 완료 목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이목을 끌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속 추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은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기본계획)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대상 지역은 목포시 옥암동·석현동 일원 199만587㎡(60만 2000평)이다.

총사업비는 4282억원에 달하며, 공동주택용지(10개 구역)·단독주택용지(8개 구역)·교육시설(5개 구역)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계획 인구는 2만 220명(8987가구)이다.

임성지구는 '남악신도시 1단계 사업'인 오룡지구 개발로 인해 목포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임성지구 개발은 민간사업자 주도할 계획으로 지난 2013년 10월 출발했지만, 민간 자본사업에 한계가 있어 지난 2018년 사업시행자가 LH로 바뀌었다.



박홍률(가운데) 목포시장과 김재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지난 20일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앞서 2017년 4월에는 LH와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 등 목포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맺었다. LH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임성지구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룡지구 확장 등 미래 개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목포시와 LH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행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목포시는 올해 2월부

터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는 임대주택 수요 조사를 마쳤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의 경쟁력 도모를 위해 임성지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LH광주전남지역본부에 "임성지구가 주거 중심의 친환경적인 신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군, 배추 작목전환 316농가 224ha 신청

ha당 450만원 보조금 지원

해남군은 군이 추진하고 있는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에 지금까지 316농가에서 총 224ha 면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은 반복되는 배추 산지 폐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배추 재배 대신 타작목

으로 전환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남도 배추 작목전환 사업량은 350ha 규모이다. 해남군에서는 이날 현재 휴경 72ha, 보리 50.6ha, 밀 28.2ha, 귀리 20.1ha, 감자17ha 등이 신청됐다. 이번 사업은 오는 25일까지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2021년~2022년 가을·겨울배추를 재배했던 농지이며, 휴경 또는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작목은 유채, 귀리, 메밀 등이며 보리와 밀은 지역농협 등 유통단체와 계약재배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수급 불안 품목인 마늘, 양파, 양배추, 무, 대파, 쪽파는 지원 제외작목이다.

사업희망자는 2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필지에 대한 1차 이행 점검은 11월~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1~2월 중 지원제외 품목 재배 여부를 최종 점검하게 된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해수청, 완도 약산도 암초에 등표 설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해상에 있는 간출암에 등표를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5억원에 들여 설치한 등표는 높이 14.0m, 직경 5.0m 규모의 원형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불빛은 7해리(약 13km)에서도 관측할 수 있어 야간 항행 선박과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운항을 돕는다.

등표 설치 해역은 어두리와 소대도 사이의 폭 200m 정도의 좁은 수로인 데다 만조 시 해수면 아래로 깊게 뻗은 간출암이 보이지 않아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 선박의 해양 사고 위험이 지속해 제기된 곳이다.

등표 설치에는 인근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마도수도와 장고도수도를 통항



하는 소형 선박들의 안전 길잡이 역할도 기대된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군, 비주거민도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다음달 4일부터 지원 사업

완도군 주민이 아닌 여객선 이용자도 다음 달 4일부터 운임 반값 지원을 받는다.

완도군은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10월 4일부터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청산도와 청산 여서도, 노화, 소안, 보길도 등이다.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이라면 할인을 우선 적용한 뒤 그 운임의 반값을 지원한다.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임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은 사업비 소진 때 할인이 종료된다. 올해 사업비는 4억3000만원으로, 전년(1억3000만원)보다

3억원 늘었다.

지난해에는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여서도와 노화, 소안, 보길도 방문객 2만 9148명에게 여객선 이용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 대상지에 청산도를 추가했다.

완도군은 다음 달 20일부터 29일까지 완도읍과 청산도·보길도 등에서 열리는 '청정 완도 가을 섬 여행' 방문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여객선 이용료 지원 사업이 관광객의 부담을 완화하고 섬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선사와 협의·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